

치 사

자승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전국 비구니회 회지 『비구니』 29, 30호 합본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활하고 드넓은 초원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은 무수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되듯, 한국불교의 미래가 희망으로 자리 매김하고 부처님이 보여주신 지혜와 안락의 길로 중생을 인도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의 일조(一助)는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조계종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번창시켜온 수행의 실천종가입니다. 그 탄탄한 뿌리 속에는 한국불교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삼학을 수행하고 깨달음에 이르고자 발심 수행한 비구니스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승가공동체의 우수함을 이룰 수 있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수승(殊勝)함을 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천 칠백년의 한국불교는 훌륭한 비구니승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구니승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존재의 근원임을 깨달아 중생들을 교화하고, 일체 유정무정을 거두어들이는 무량한 자비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 교학연구 · 복지 · 문화 활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천행이 미래 한국불교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비심과 실천행의 두 덕목을 겸비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나투신 곳이 바로 비구니회관입니다.

특히, 2012년 올해는 비구니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구니회관의 눈부신 발전과 역할을 치하하며,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옥도 단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참다운 성과는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반듯한가에 달려있습니다. 비구니회관의 현주소가 그러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보시의 실천으로 세계의 불교도가 찬탄하는 수행과 포교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불국토 실현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걸음 속에 찬란한 화엄의 세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회관의 소임자 스님들을 비롯하여 제방에서 수행정진과 포교 원력에 힘쓰시는 모든 비구니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며, 수행의 빛을 녹여 못 중생들의 눈높이서 대중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불법홍포의 원력으로 여일(如一)하게 정진하시
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의 광대한 발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